

김유신·차명진이 함께 꾸는 간절한 선발 투수 승리의 꿈

KIA, 수도권 원정 9연전 강행군



김유신과 차명진의 바람이 이뤄지면 KIA의 6월에도 뜨거운 바람이 분다.

KIA 타이거즈는 18일 LG 트윈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KT 위즈,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를 갖는다. 수도권 9연전 강행군이 펼쳐지지만 팀 상황이 좋지 않다.

브룩스와 멧텐의 팔꿈치 부상으로 원정 9연전도 '외국인 원투펀치' 없이 치러야 한다.

KIA는 이번 주말은 김유신을 시작으로 이만우 차명진으로 선발진을 꾸려간다.

이만우가 지난 13일 롯데와의 더블헤더 2차전 선발로 나서 5이닝 2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가운데 김유신과 차명진은 '승리'라는 바람을 이루기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김유신은 4월 21일 LG를 상대로 상무 전역 후 복귀전을 치렀다.

4.1이닝 1피안타(1피홈런) 5볼넷 3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던 김유신의 가장 최근 선발 상대도 LG다.

김유신은 5월 LG전 선발로 나와 3.1이닝 9피안타(1피홈런) 3볼넷 3탈삼진 7실점으로 올 시즌 가장 부진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앞서 두 번의 만남에서 결과가 좋지 못했고 또 7번의 선발 등판에서 소득이 없었던 만큼 '승리'라는 간절함을 안고 잠실로 향한다.



김유신

차명진

김유신은 "공이 낮게 안 가니까 상대가 다 쳤다. 낮게 던지려고 하면 물리고 그래서 계속 맞아나갔다"고 앞선 LG전을 떠올렸다.

앞선 실패를 통해 찾은 새로운 전략은 '정면승부'다.

김유신은 "그 전에 계속 볼볼하고 볼 개수가 많아지니까 좁혀서 던지려고 하다 보니 다 맞아나갔다. 그렇게 던지려고 하는 게 더 욱이 되는 것 같다. 그냥 승부하려고 한다"며 "행들 하듯이 자신 있게 들어가고 빠르게 빠르게 승부하겠다. 머리 아프게 돌려서 하기보다는 맞더라도 빠르게 초반 카운트 잡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비로 예정됐던 등판이 밀리면서 김유신은 16일 SSG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볼펜 투수로 나와 컨디션 점검을 했다. 8개 공으로 삼자범퇴를 잡으면서 감은 좋다.

김유신은 "스케줄이 계속 바뀌어서 몸이 처졌는데 결과가 좋았다. (오랜만에 볼펜으로 나가니까)

떨렸다. 처음 LG전 던질 때와 똑같았다"며 "공격적으로 던지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 그 감으로 던지겠다. 승리하고 싶다"고 웃었다.

차명진은 '5회'를 1차 목표로 해 승리에 도전한다. 차명진은 6월 9일 삼성 원정에서 2년 만에 선발로 출격했다. 그리고 이날 팀은 7-5로 승리했지만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다.

4-0으로 앞선 5회 1사 1루에서 피렐라에게 적시타를 내준 차명진은 이어 구자욱의 타구를 직접 잡아 1루에 던졌지만 세이프가 됐다. 이어 오재일에게 3연속 안타를 맞고 4.2이닝 6피안타 2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

차명진은 "너무 아쉬웠다.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은 게 아쉽다. 구자욱 승부 때 처음에는 안 뒤길래 다리 맞았다 해서 내가 스타트가 늦었다. 그게 아쉬웠다"며 "또 피렐라에게 던진 실투가 아쉽다. 몸쪽 높게 던져야 했는데 바깥쪽 빠지게 던져서 안타 맞았다"고 이야기했다.

아웃카운트는 아쉽지만 투구수는 만족스럽다.

이날 72개의 공을 던진 차명진은 "투구수가 5회 전까지는 적었다. 그것에 만족한다. 초반에는 스트레이트 볼넷도 줬는데 3. 4회 볼넷 없이 했다. 변화구 컨트롤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에서는 더 많은 이닝으로 팀 승리를 책임지고 싶다.

차명진은 "최대한 많은 이닝 던지는 게 나한테도 이득이고 팀에도 이득이다. 잘 버텨서 긴 이닝 소화하고 승리투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윌리엄스 감독, 국가대표 발탁 날 무실점 피칭 폭풍 칭찬

이의리의 '멘탈'을 언급한 KIA 윌리엄스 감독이 커트 실링을 떠올렸다.

KIA 타이거즈 이의리는 지난 16일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 2차전에서 55.2이닝 1피안타 2볼넷 무실점의 피칭을 하며 2-0 승리를 이끌었다.

이의리는 10개의 탈삼진까지 뽑아내면서 '국가대표' 자격을 입증했다.

생일이었던 이날 오전 이의리는 올림픽국가대표 선발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국가대표 야구선수'의 꿈을 이룬 이날 밤에는 승리투수가 되면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막내의 하루를 지켜본 윌리엄스 감독은 17일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좋은 생일이였다. 승도 쟁기고 국가대표도 발탁이 됐다. 어제는 직구 제구도 좋고 변화구도 잘 들어갔다"며 "나에게 멘탈이 한 단계 성장한 부분이 보였던 게 크다"고 이의리의 전날 피칭을 언급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인간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큰 일이 많이 있으면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찌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고 전체적으로 좋았던 날이었다"고 호투로 최고의 생일을 자축한 이의리를 높게 평가했다.

이의리도 경기가 끝난 뒤 "던질 때는 대표 선발에 대한 생각이 안 났던 것 같다. 던진 날 느낌, 벨

런스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공격적인 부분이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어느 날보다 잘 던지고 싶은 마음은 컸다. '루키'의 대표팀 선발을 놓고 일부 야구팬의 굵지 않은 시선도 있었던 만큼 실력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이의리다.

이의리는 "오늘 더 잘 던지고 싶었다. 뽕힐 만했으니 뽕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솔직한 속내를 이야기했다.

실력과 특급 멘탈로 최고의 피칭을 한 '루키'에 팬들은 박수를 보냈고, 윌리엄스 감독도 자신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던 특별했던 투수를 떠올리며 기대감을 보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오래 전 선수이기는 하지만 리그 전체에서 홈런을 많이 내줬던 투수라던 적이 있는데 그 시즌에 22승을 했다. 그 선수가 커트 실링이다"며 말을 꺼냈다. 커트 실링은 메이저리그 통산 216승에 빛나는 전설적인 투수다.

윌리엄스 감독은 "커트 실링은 홈런 숫자가 많았지만, 볼넷은 없어서 많은 점수를 내주는 이닝이 없었다. 솔로 홈런은 괜찮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며 "그런 것을 이의리가 배워가는 느낌이다.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좋은 결과가 따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7일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 조별리그 A조 2차전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기에서 이탈리아 마누엘 로카텔리가 두 번째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카텔리 멀티골...이탈리아 '화려한 부활'

스위스 3-0 완파 유로2020 16강

53년 만의 유럽축구 정상 탈환을 노리는 이탈리아가 스위스도 완파하고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첫 번째 나라가 됐다.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은 17일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2020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마누엘 로카텔리의 멀티 골과 치로 임모빌레의 추가 골을 엮어 스위스를 3-0으로 꺾었다.

12일 대회 개막전에서 터키도 3-0으로 제압했던 이탈리아는 2연승을 거두고 조 1위를 지켜 남

은 웨일스전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번 대회에서 16강 진출이 결정된 건 이탈리아가 처음이다.

이날 승리로 이탈리아는 2018년 10월 11일 우크라이나와의 평가전(1-1 무승부)부터 시작된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무패 행진도 29경기(24승 5무)째 이어갔다. 최근 10경기에서는 31골을 몰아넣고 무실점으로 전승을 거뒀다.

반면 스위스는 웨일스전 1-1 무승부에 이어 2경기 연속 무승(1무 1패)으로 3위에 처져 탈락 위기에 놓였다.

이탈리아는 전반 21분 균형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도메니코 베라르디가 상대 골 지역 오른

쪽을 파고든 뒤 낮은 크로스로 문전에 쇄도하는 로카텔리에게 완벽한 찬스를 열어줬고, 로카텔리가 오른발로 가볍게 마무리했다.

전반을 리드한 채 마친 이탈리아는 후반 들어 7분 만에 추가 골을 넣었다. 로카텔리가 페넬티아크 앞에서 원발 중거리 슛을 스위스 골문 구석에 꽂아 리드를 벌였다.

이후에도 공세를 늦추지 않은 이탈리아는 후반 44분 임모빌레가 페넬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스위스의 백기를 받아냈다. 임모빌레는 이번 대회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텍사스 양현종, 결국 트리플A로 갔다

미국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가 17일 양현종을 마이너리그 트리플A 라운드 룩으로 보냈다.

텍사스는 볼펜으로 뛰는 양현종을 26인 로스터에서 제외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명단에 있었던 마무리투수인 케네디가 양현종이 비워놓은 자리에 들어올 예정이다.

양현종은 지난날 31일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 선발 등판, 3이닝 3실점(1자책)을 기록한 이후 볼펜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12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전에서 1.1이닝 2실점을 던졌을 뿐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양현종은 텍사스와 스플릿계약(마이너리그·메이저리그 신분이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는 계약)을 하고 메이저리그 진입을 노리다가 지난 4월 27일 콜업됐고, 즉시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전에 구원 등판해 4.1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서 8경기 3패 평균자책점 5.5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최하위 탈출 위한 총력전

내일 FC 서울과 K리그1 홈경기 상대 공격 봉쇄 뒤 역습 작전

재충전을 끝낸 광주FC가 승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9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 서울과 K리그1 2021 14라운드 순연 경기를 치른다. 지난 5월 8일 예정됐던 14라운드 경기는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기됐다.

올 시즌 치른 18경기에서 광주는 4승 2무 12패(승점 14)를 기록하면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A매치 휴식이 이전에 치른 19라운드포항과의 원정경기에서도 팽팽한 승부를 펼쳤지만 경기 종료 직전 아쉽게 실점하면서 0-1패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5월은 1무 5패로 마무리됐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이번 경기는 자존심을 건 승부이기도 하다.

많은 선수층에 고전하는 광주는 골 결정력과 막판 체력 저하로 어려운 승부를 하면서 땅을 쳤었다.

뻑뻑했던 전반기 일정도 광주에는 악재가 됐지만 5월 30일 포항전 이후 넉넉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 충전을 끝냈다.

'체력' 핑계는 통하지 않는 진짜 승부가 펼쳐진다.

광주는 포항전 이후 공격 전개와 득점력 강화 그리고 수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했다. 또 미팅을 통해 소통하면서 자신감도 키우는 등 라커룸 분위기를 바꾸는 데 주력했다.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된 광

주는 체력까지 채운 만큼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며, 좁은 수비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

브라질 특급 헤이스의 발도 매서워지고 있고, 이한도와 한희훈이 중심이 된 수비진도 혼신의 플레이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

'플레이메이커' 김중우도 부상에서 돌아와 서서히 경기력을 회복하고 있다. 원문상에게는 '올림픽 대표'라는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서울전을 앞둔 마음이 날다르다.

벤치 대결도 흥미롭다. 지난 시즌 광주전용구장에서 경기를 지휘했던 박진섭 감독이 처음 서울 선수단을 이끌고 옛 안방을 찾는다. 박 감독은 익숙한 구장과 선수들을 상대로 다양한 전술을 준비할 전망이다.

지난 시즌 감독대행으로 서울을 이끌었던 김호영 감독도 서울의 빈틈을 잘 알고 있다.

최근 서울 상황은 좋지 않다.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남긴 서울은 수비지역에서 불안한 노출하며 최근 10경기 무승(4무 6패)에 빠졌다. 광주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서울은 승점 2점 차 11위다.

하지만 서울은 까다로운 상대이다. 앞선 첫 대결에서 속수무책 광주의 골대를 뚫었던 기성용과 함께 박주영, 조영욱, 팔로세비치 등 강력한 한방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

상대 전적에서도 2승 3무 11패로 광주가 열세다.

탄탄한 수비와 중원 압박으로 상대 공격을 봉쇄하면서 빠른 역습을 통해 서울의 골문을 노리는 게 광주의 전략이다.

최하위 광주가 서울을 꺾고 기분 좋은 휴식을 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